

폐숙박업소 건물서 50대 남성 변사체로 발견

지난 12일 행인이 발견·신고... 밀랍 인형처럼 굳어 해당 건물 2006년 7월쯤 행정당국에 폐업신고 처리 작년 유사사건 2건... 복지 사각지대 또다시 드러나

낡은 건물에서 풍겨오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와 먼지 쌓인 바닥. 한 때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찼을 이곳은 이제 어둠만이 감도는 폐허가 됐다. 지난 12일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의 한 폐숙박업소는 마치 그가 여태껏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생생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4분쯤 제주 시내 한 폐업 숙

박업소 지하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지나가는 행인이 A씨를 발견해 신고했으며, 당시 그의 시신은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채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였다.

행려자로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듯 A씨가 발견된 장소 근처에는 그의 행적이 가득했다. 마스크, 장갑, 가방, 휴지,

양말, 운동화, 물통 등이 주변에 널브러져 있었고, 시계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알려주듯 3월 12일에 멈춰있었다.

그가 발견된 장소는 지난 2006년 7월쯤 제주시에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1987년 숙박업소로 처음 문을 열었으며, 폐업 이후 다른 영업을 목적으로 신고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숙박업소에서 기초생활수급 이력이 있는 70대 백골 시신이 잇따라 발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당국은 유사사건 방지를 위해 영업 중인

여관·여인숙 뿐만 아니라 폐업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진행했다. 당시 조사는 제주시 관내 운영 업소 384개소, 폐업업소 246개소 등 총 59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복지 사각지대 138가구를 발굴해 긴급지원, 사회보장급여 신청, 돌봄 서비스를 연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복지 위기가구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폐숙박업소를 대상으로도 꼼꼼히 현장 확인을 거치고 있지만 문이 잠겨있거나 공사 중인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경찰영웅 문형순 서장 안경 벗은 모습 첫 공개

안경 벗은 문형순 서장의 모습이 처음 공개된다.

제주교육박물관은 13일 제주 4·3 77주년 4·3 평화·인권교육 주간을 맞아 경찰 영웅인 문형순 서장이 포함된 모슬포화도호국단 결성식 사진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1949년 4월 28일 진행된 모슬포화도호국단 결성식 2개의 장면을 한 장에 인화한 원본사진이다. 사진 속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은 당시 모슬포지서장인 문형순 서장으로 안경을 벗은 모습은 이 사진이 유일하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진자료는 1949년 대정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고(故) 이재준 씨가 소장했던 사진 61점 중 하나로, 그의 며느리가 박물관에 기증했다.

문 전 서장은 1949년 제주 4·3 당시 대정읍 주민 100여명을 살리고



안경 벗은 문형순 서장. 제주교육박물관 제공

1950년 군의 예비검속자 처형 지시 이행을 끝까지 거부해 278명의 생명을 구한 경찰영웅이다. 이 사진 자료는 제주교육박물관 누리집(org.j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정기자

대낮 편의점서 점원 성폭행 경찰, 60대 남성 구속 송치

대낮에 편의점에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사강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30분쯤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원이 탕비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제주 시내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9일 구속했다. 김재현기자



희미하게 보이는 신제주 시가지 중국발 향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나뭇을 보인 13일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너머 신제주시가지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김재현기자

크루즈서 잇단 환자 이송

제주에 입항한 크루즈선에서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1분쯤 제주항 9부두에 정박 중인 미국선적 크루즈선(7만7000t급)에서 50대 미국인 A씨가 대퇴골절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8시42분쯤에는 제주항 11부두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70대 미국인 B씨가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김재현기자

"외국인 범죄 예방 종합대책 마련·추진" 제주자치경찰위, 외국인범죄 종합대책 추진 지휘

최근들어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자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에 외국인 범죄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라고 지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지휘에서 ▷외국인 밀집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 순찰 강화와 CCTV 설치 확대 ▷쓰레기 무단 투기와 교통법

규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 집중 단속 ▷다국어 리플릿 제작 홍보와 안내판 설치 확대 ▷출입국의 국인청 등과 정기적인 합동 점검 실시 등이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과 범죄 예방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제

주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잠정통계)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피해자는 608명이며 유형별로는 살인 1명, 성범죄 14명, 절도 62명, 폭력 113명, 지능범죄 74명, 마약류 1명, 교통 143명, 기타 200명 등이다.

최근들어서는 대형 호텔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무사증을 이용한 마약 밀수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강력범죄가 위협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영석기자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 징역 14년 구형 6만6000명 투약 가능 분량 지난해 제주세관에 적발

검찰이 대량의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려던 국제 마약 밀매 조직 운반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인도네시아인 A씨(32)의 특정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필로폰 2.07kg(6만6000명 투약 가능 분량, 2억원 상당)을 중국을 거쳐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다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운반 대상 물건이 마약인 사실을 알고 여행용 가방만 맡기고 호텔에 잠적했는데 조직에서 찾아와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필로폰이 실제 유통되지 않았고, 운반의 대가로 50만원을 받기로 해 이익도 경미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중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백근탁기자 haru@ihalla.com

"농협 직원이예요"... 80대 노인 속인 30대 체포

농협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편취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귀포시 선산읍에서 80대 B씨를 상대로 농협 직원이라고 속여 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예금과 출자금 총

액이 1억원 이상이면 설 명절 기념으로 쌀과 선물을 주겠다"며 B씨로부터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날 오후 은행 마감시간에도 A씨가 카드를 돌려주지 않자 농협에 전화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기자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윈터프린스

탐나는봉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토, 일반묘)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생 / 미래향 / 제라온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무량품종 1~3년생(포토,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궁천조생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포토, 화분묘, 일반묘)

하귤 / 팔삭 / 세미늘 / 금귤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 감귤 무병묘 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 생산, 모수포 보유)
◆ 보조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 (원지정비의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토묘, 화분묘 분양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화시판매 가능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010-4736-2479 / 010-6500-2329

총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5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3,0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윈터프린스 /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2025년 예약 중 무병묘 / 포토묘 보조사업 가능

< 포토묘 >

도내 최대 <포토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카라향 / 황금향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 외 다수 품종

010-4450-4316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